

UN, 파리 신기후협정 초안 마감일 2.13 일

협상가들은 다음달(2 월) 제네바에서 초안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며,
이에 실패할 경우 12 월 마련될 신기후협정의 법적 근거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.

2015.1.31, Sophie Yeo/ UN 기후변화 협상 공동의장은 올 2 월 2015 파리 신기후협정 초안을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.

전세계 기후 외교관들은 리마 당사국총회에서 신기후협약을 위한 다양한 안을 담은 38 페이지 문건을 작성한 바 있으며, 그 후 2 월 8 일~13 일까지 제네바에서 첫 모임을 갖게 된다.

2 월 모임은 UN 이 협상 문건 초안 마련 시기를 규칙으로 못박은 5 월 이전 열리는 마지막 모임이다. 5 월로 시기를 못박은 것은 영어에서 5 개 UN 공식 언어로 번역을 해야 하는 작업에 걸리는 시간 때문이다.

새로 임명된 알제리의 아흐메드 조그라프(Ahmed Djoghlaif)와 미국의 댄 레이프스나이더(Dan Reifsnnyder)는 2 월 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이 따라야 할 지시를 담은 “시나리오 노트”를 펴냈다.

초안 작성의 책임이 있는 대표자들은 매일 8 시까지 회의를 하며 초안을 “간소하고, 간결하며, 어려움 없이 다룰 수 있고, 협상가능(streamlined, concise, manageable and negotiable)”하게 바꾸어야 한다.

공동의장은 “이를 위해 이들은 문안을 간소화하고 중복과 군더더기를 없애고 대안과 이견차를 잘 보여주며, 가능한 한 제안과 개념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”고 말했다.

공동의장은 또한 대표들이 신기후협정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중요한지, 이와는 별도로 파리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 수 있는지 규명하는 작업도 요청했다.

분량 줄이기

공동의장의 의도는 좋지만, 여전히 협상문 분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콩고민주공화국 협상대표가 말했다.

“현재 협상문은 대부분의 견해를 다 담고 있다. 그 견해들이 다양하긴 하지만, 크리스마스 소원 리스트 같은 방식이다,”... “당사국은 각자의 견해가 어떤지 자세히 밝히려 할 것이고, 그러면 협상문은 더 길어질 것이다. 공동의장은 제네바 회의가 끝날 때 분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당사국 입장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”고 RTCC 에 말했다..

현재 협상문은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수준의 목표를 포괄하고 있다.

당사국들이 유지/삭제하여 마련된 안은 결국 파리 신기후협정이 지구온난화를 제어할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할 것이다.

가장 야심찬 안은 2050 년 배출량 제로를 약속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.

[0201_번역]

세계기후행동네트워크(Climate Action Network International)는 이번 제네바 회의에 코펜하겐 실패의 그림자가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. 당시 당사국은 국제 협약에 합의하지 못했다.

2009 년 코펜하겐 회의 동안, 약 200 페이지에 달하는 협상문으로 협상 자체 진행이 방해된 적이 있다.

대표는 “단 6 일동안, 공동의장은 서로 다른 당사국이 확신과 신임을 갖고 협상 기초를 수용할 수 있도록 초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,”... “협상문은 가능한 한 다룰 수 있는 정도의 분량으로, 일관되고, 매우 간결하게, 동시에 당사국이 수긍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.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.”고 말했다.

그는 또한 이번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초안이 5 월에 완성되지 않으면, 파리 신기후협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.

출처 = <http://www.rtcc.org/2015/01/30/pressure-on-to-finish-draft-paris-climate-deal-in-february/#sthash.ESwL9YL2.dpuf>
